소동파

김 성 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교수)

서림사 벽에 쓰다 題西林壁

橫看成嶺側成峰(횡간성령측성봉),	가로 보면 고개마루 옆에서 보면 봉우리
遠近高低各不同(원근고저각부동).	원근고저 그 모습이 제 각각이라
不識廬山眞面目(불식여산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노니
只緣身在此山中(지연신재차산중).	이 몸이 이 산속에 있어서가 아닌가

소동파

- 1037 - 1101
- 본명은 소식(蘇軾), 자는 자첨(子瞻)
- 북송의 시인 ・예술가・ 정치가
- 동파는 그의 호로 동파거사(東坡居士)에서 따온 별칭이다
- 아버지 소순(苏洵), 동생 소철(苏轍)과 함께 3소(三苏)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은 모두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한다.

동파 東坡

雨洗東坡月色淸 (우세동파월색청),
市人行盡野人行 (시인행진야인행).
莫嫌牢確坡頭路 (막혐뇌확파두로),
自愛鏗然曳杖聲 (자애갱연예장성).

비에 씻긴 동파에 달빛 맑은데
성 사람들 다 돌아가고 야인만 거니네.
동파 길 평탄치 않다 탓하지 마시게나
텅텅 울리는 지팡이 끄는 소리 절로 듣기 좋으니

동파육 東坡肉

소동파가 항주에서 유배시 개발한 요리

돼지고기를 푹 고아 조리하는 간단한 조리법. 물을 조금만 붓고 불에 올려놓은 후 몇 시간 동안 뭉근하게 삶아서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동파육'은 요리사로서의 소동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사랑한 훌륭한 목민관으로서의 자애로운 모습까지 보여준다.

삼불여 三不如

서호 소제(蘇堤)

동파는 일찍이 스스로가 남보다 못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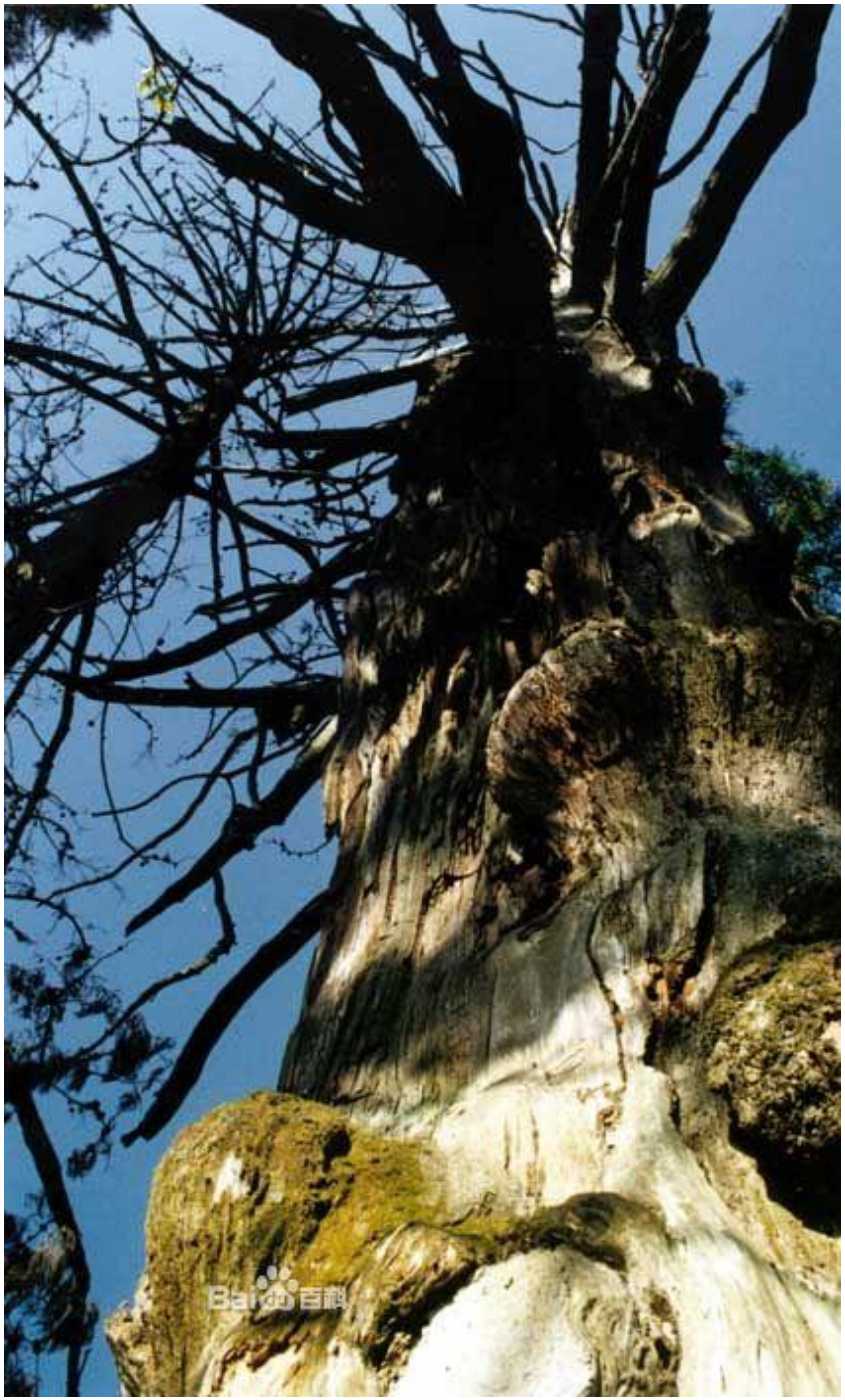
이른바 '삼불여(三不如)'이다. 바둑, 노래, 주량이다.

이 세 부분을 빼놓고는 어떤 분야에서든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왕복 수재의 집에 있는 두 그루 회나무를 읊다
王復秀才所居雙檜

凜然相對敢相欺(늠연상대감상기),
直幹凌空未要奇(직간릉공미요기).
根到九泉無曲處(근도구천무곡처),
世間惟有蟄龍知(세간유유칩룡지).

늠름히 서로 마주하니 뉘 업신여기랴
곧은 가지 하늘로 치솟은 것 기이타 하지 마라
구천까지 내리 뻗은 뿌리가 다다른 곳
세상에서는 오직 숨은 용만이 알리라



금산에서 그려준 초상화에 쓰다
自題金山畫像

心似已灰之木 (심사이회지목),
身如不系之舟 (신여불계지주).
問汝平生功業 (문여평생공업),
黃州惠州儋州 (황주혜주담주).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버린 나무
몸은 매이지 않은 배
그대 평생의 공업이 무엇이뇨
황주, 혜주, 담주라네

적벽부 赤壁賦

임술년 가을 칠월 십육일 밤,
소식이 객과 더불어 적벽에 배를 띄워 노닐었더니
청풍이 살랑 불어 물결이 일지 않누나.
술잔 들어 객에 권하고는
명월의 시를 읊고 명월의 노래를 부른다네.
이윽고 달이 동산 위로 떠올라
북두성 견우성 사이에서 배회하는데
흰 이슬이 강에 자욱하게 내리고
물빛이 하늘에 닿았더라
일엽편주 가는 대로 맡겨 두었더니
아득한 만경창파를 건너가는구나
넓고 넓어 바람을 타고 허공을 나는 듯
어디서 그칠까
살랑살랑 나부끼며 세상을 버리고 홀로 우뚝 서서
날개 달고 선계에 오른 듯하구나

적벽부 赤壁賦

壬戌之秋, 七月旣望,
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
淸風徐來, 水波不興.
擧酒屬客,
誦明月之詩, 歌窈窕之章.
少焉, 月出於東山之上,
徘徊於斗牛之間.
白露橫江,
水光接天.
縱一葦之所如,
凌萬頃之茫然.
浩浩乎如馮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

적벽부 赤壁賦

또한 무릇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는 법,
내 것이 아니라면 터럭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
다만 강 위에 부는 맑은 바람과 산에 뜬 밝은 달은
귀로 들어 음악이 되고
눈으로 보아 그림이 되네.
취하여도 금하는 이 없고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느니,
이는 조물주가 허락한 끝없는 보물이라
그대와 내가 함께 즐기는 바로다.

적벽부 赤壁賦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淸風, 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子之所共適.

박박주 薄薄酒

교서 선생 조명숙은 집이 가난하나 술을 좋아하였으므로 술을 가리지 않고 마셔 취하였다. 항상 이르기를, “묽디묽은 술이 차보다 낫고, 지지리 못생긴 마누라가 빈 방보다 낫다”고 하였다.

말이 비록 저속하긴 해도 달관한 면이 있어 이를 보충하여 잘 다듬으면 동주 지역의 민요집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아직은 그리하지 못하고 우선 글을 한 편 지어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자 한다.

胶西先生赵明叔，家贫，好饮，不择酒而醉。

常云：薄薄酒，胜茶汤，丑丑妇，胜空房。

其言虽俚，而近乎达，故推而广之以补东州之乐府；

既又以为未也，复自和一篇，聊以发览者之一噱云耳。

박박주 薄薄酒

묽디묽은 술이 차보다 낫고,
거칠고 거친 삼베라도 옷 없는 것보다는 나으며,
못생기고 성질 못된 마누라일지라도 독수공방보다는 낫다네.

薄薄酒，胜茶汤；
粗粗布，胜无裳；丑妻恶妾胜空房。

박박주 薄薄酒

꼭두새벽 조회가는 사람이여, 신발에 차가운 서리가 가득하구나.
어찌 삼복 한낮 서늘한 북창에서 늘어지게 자는 것만 하리오.
구슬 수의 입고 옥관에 들어 만인의 전송으로 북망산천으로 가는 사람아
누덕누덕 떨어진 옷 걸치고 아침 햇살 등에 쬐며 홀로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떠하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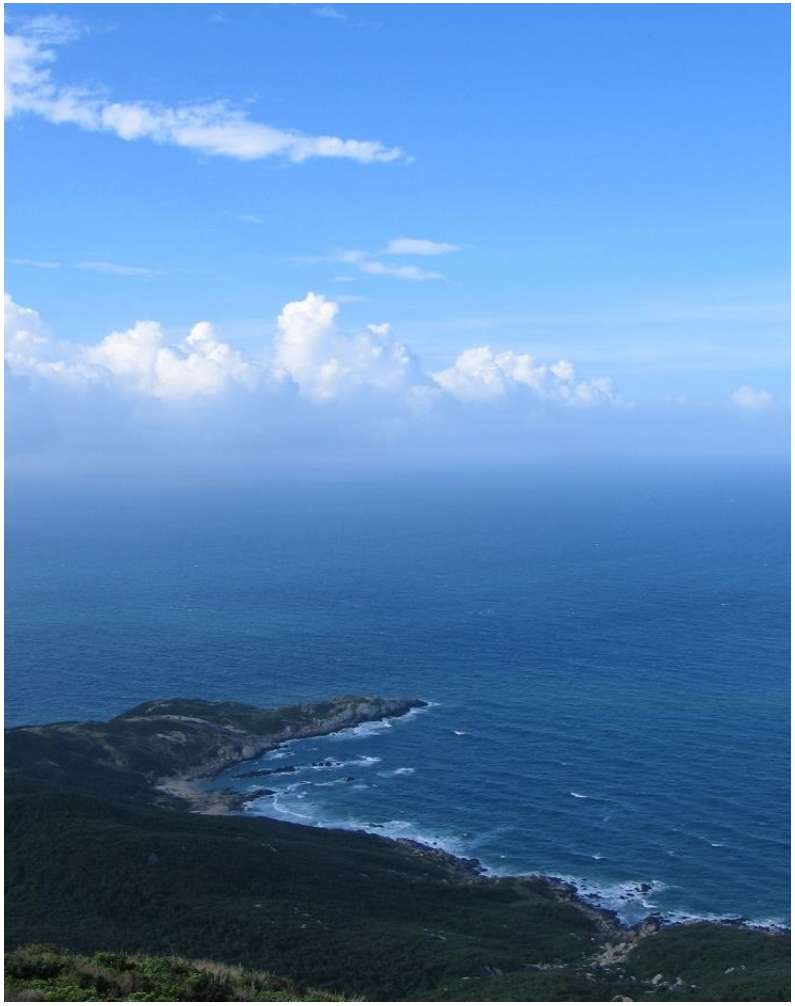
五更待漏靴满霜，不如三伏日高睡足北窗凉。
珠襦玉柙万人相送归北邙，不如悬鹑百结独坐负朝阳。

박박주 薄薄酒

생전에 부귀하고 죽어 문장을 날리겠다고?
백 년이 순식간이거늘 만 년인 양 바쁘구나.
천하의 의인인 백이숙제나 천하의 도적인 도척이나 그게 그거지,
지금 당장 한번 취하여 시비도, 고락도 모두 잊어버림만 하겠는가.

生前富贵，死后文章，百年瞬息万世忙。
夷齐盗跖俱亡羊，不如眼前一醉是非忧乐都两忘。

해남 여족 표와 이별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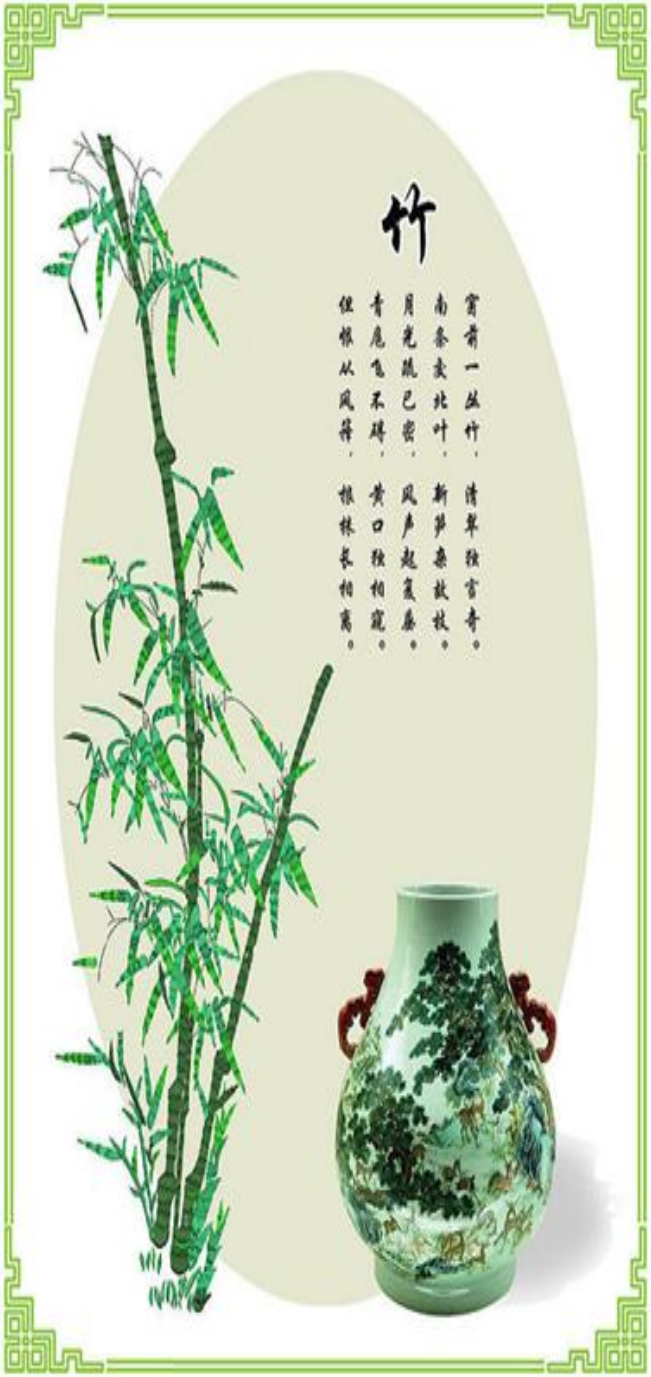


我本海南民 (아본해남민) ,
寄生西蜀州 (기생서촉주)。
忽然跨海去 (홀연과해거) ,
譬如事远游 (비여사원유)。
平生生死梦 (평생생사몽) ,
三者無劣优 (삼자무열우)。
知君不再见 (지군부재견) ,
欲去且少留 (욕거차소류)。

내 본시 해남도의 사람이었거늘
어쩌다 서쪽 촉주에서 태어났었지.
지금 홀연 바다를 건너가느니
멀리 노닐러 가는 것이라 하겠네.
평생의 삶과 죽음, 꿈이여
이 셋 모두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었다네.
그대를 알고 다시 보지 못하게 되니
떠나려다 가지 못하고 다시 잠시 머문다네.

녹균헌에서
綠筠軒

음식에 고기를 없앨 수는 있으나
사는 곳에 대나무 없을 수 없네
고기 없으면 사람이 마르겠지만
대나무 없으면 사람이 속되어진다네
마른 것이야 그래도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선비가 속되어지면 치료할 길이 없다네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비웃어
고상한 듯하나 어리석은 것 같다고 하네
대나무를 대하고 여전히 고기를 실컷 먹겠다니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 있겠는가



綠筠軒

可使食無肉，不可居無竹.
無竹令人瘦，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士俗不可醫.
傍人笑此言，似高還似痴.
若對此君仍大嚼，世間那有揚州鶴 .

자유의 '민지회구' 시에 화답하여
和子由渑池怀旧

인생살이 무엇과 같은가
기러기 날다 눈 진흙을 밟은 것과 같다네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겼을 뿐
기러기 날아가면 동서를 어찌 알리요
늙은 스님은 이미 죽어 새 탑이 되고
벽 허물어져 옛날 시를 볼 수 없는데
지난 날 고생했던 일 아직 기억하고 있는가.
길은 멀고 사람은 지치고 절름거리며 나귀는 울었었지.

자유의 '민지회구' 시에 화답하여
和子由渑池怀旧

人生到處知何似 (인생도처지하사),
應似飛鴻踏雪泥 (응사비홍답설니).
泥上偶然留指爪 (니상우연류지조) ,
鴻飛那復計東西 (홍비나부계동서).
老僧已死成新塔 (노승이사성신탑) ,
壞壁無由見舊題 (괴벽무유견구제).
往日崎嶇君知否 (왕일기구군지부),
路長人困蹇驢嘶 (노장인곤건려시).

감사합니다.